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2

번뇌의 근원을 뽑아라

[원문]

정극광통달(淨極光通達) 적조함허공(寂照含虛空) 각래관세간(却來觀世間) 유여몽중사(猶如夢中事) 수견제근동(雖見諸根動) 요일기추(要以一機抽) -마곡사 대광보전

[번역]

맑고 다한 빛 그 통달함이어
고요하게 저 허공을 모두 비추네.
세상을 살펴 바라보니
모두가 꿈속의 일이다.
비록, 모든 것의 근원이 움직일지라도
요컨대 이를 단번에 뽑아 버려라.

[신해(禪解)]

얼마 전, 대법원은 식물인간이 된 70대 할머니의 생명을 16개월 동안 유지하게 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실로 파격적인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살아 있는 생명을 해쳐야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중생의 생명이다. 아무리 작은 미물일지라도 함부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엄연히 아직 숨을 거두지 않은 할머니의 존엄사를 인정한 사례가 된 것이다.

예로부터 부모의 죽음은 '천붕지괴(天崩地壞)'의 아픔이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질 정도의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부모의 죽음이다.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생명을 인공호흡기를 잠시 스스로 떼어내야 하는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생명을 하늘에 있다. 스스로 가야할 때를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이 알 뿐이다. 이것은 대법원도, 자식도 의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면 1시간 내에 숨을 거둘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무려 24시간을 버티고 있고 호흡도 점점 안정화 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할머니가 정상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공호흡기로 의지한 육신이 자신의 힘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할머니의 존엄사 허용이 너무 서급하지 않았느냐는 견해도 나왔다고 한다.

생명을 죽이면 그 과보가 얼마나 큰 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불교계는 해마다 방생을 하고 있

는 것이다. 일찍이 부처님은 '모든 유루(有漏)의 선법(善法) 가운데 방생의 공덕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무릇 기타의 선법은 자기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공덕이 없으나, 방생은 그 마음이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그 일은 모두 직접 중생에게 혜택이 미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불가사의한 선의 과보가 있으며, 비록 한 마리의 생명을 방생해도 그 공덕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방생된 중생은 참을 수 없는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 방생하면서 부처님의 명호와 다라니를 염하여 가피를 주면, 마침내 그들 중생도 불퇴전의 과위를 얻게 된다' 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사'는 부처님의 사상에 절대적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다. 실로 부처님이 2500여 년 전 남기신 설법이 오늘날에도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속세의 업 때문에 중다의 독버섯을 먹고 열반에 들었다. 영축사에서 8년 동안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이 또한 보물이다. 이 밖에 지방문화재로서 범종(梵鐘), 괘불(掛佛), 목패(木牌)가 있으며, 세조가 타던 연(轎), 청동 향로 등이 있다. 국보급 보물로서는 <감지금니묘법연화경(紺紙金泥妙法蓮華經)> 제6권 및 <감지은니묘법연화경> 제 1권이 보관돼 있다.

마곡사의 가람 배치는 특이하다. 계곡이 경내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 위에 걸쳐진 극락교가 속세와 진계의 두 영역을 나누고 있다. 이곳은 특히 풍광(風光)이 매우 아름다워 항상 사진작가가 많이 붐빈다. 중심 건물인 대광보전은 진리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불을 모셨으나 불에 타 버렸던 것을 조선시대 순조 때 다시 고쳐 지은 건물로서 해탈문과 천왕문이 일직선으로 놓여 있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으로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다. 이를 대표 양식이라고 하는데 밖으로 뻗쳐 나온 부재의 끝이 날카로우며 위에 연꽃봉오리를 조각했다.

문살은 꽃 모양을 섞은 조각으로 장식했고 가운데 칸 기둥 위로 용머리를 조각해 놓았다. 건물 안쪽 전장은 우물정(井)자 모양으로 꾸몄다. 불단은 서쪽으로 마련했는데 불단 위에는 불상을 더욱 엄숙하게 꾸미는 단장을 정교하게 조각했다. 안팎으로 구성과 장식이 풍부하고 건축법이 매우 독특한 건물로 이름이 나 있어 조선 후기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대광보전 속에 담긴 주련의 내용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설파한 가르침을 온전히 담고 있다. '정극광통달 적조함허공'은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은 맑은 빛보다 더 청정하고 모든 세간을 통달하여 항상 중생들 곁에서 빠짐없이 비추고 있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각래관세간 유여몽중사', 돌이켜 자세히 살펴보니 지나온 모든 일들이 한갓 꿈속의 일에 지나지 않으며 이 또한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수견제근동 요일기추' 즉, 모든 번뇌의 근원을 단번에 뽑아 버려야만 진실로 마음의 해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진짜 수행이다.

부처님은 일찍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설파한 적이 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바로 재물욕(財物欲) 성욕(性欲:色欲) 음식욕(飲食欲) 명예욕(名譽欲) 수면욕(睡眠欲) 등 오욕락(五慾樂) 때문인데 이것이 곧 죄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다. 이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물욕인데 이 앞에서는 그 어떤 성자도 편안할 수가 없는 것 같다. ■ 조계종 원로의원

집착하는 마음이 부처님의 밝은 가르침 못보게 해 '무상'의 도리 깨우쳐 대자유 추구하는 것이 수행

안 머물러 <법화경>을 설하신 다음, 카필라성의 쿠시나가라에 도착했을 때 대장장이가 부처님 일행을 보고 독버섯이 든 공양을 올렸던 것이다. 그 때 부처님은 독버섯이 든 걸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못 먹게 하고 대신 혼자 드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그 음식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충남 마곡사다. 마곡사는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태화산 동쪽 산허리에 있는 아름다운 천년 고찰이다. 산속에 깊이 들어선 마곡사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춘마곡(春麻谷) 주갑사(秋甲寺)' 때문이다. 봄이면 산수유와 왕벚꽃 등이 피어나 선경(仙境)을 이룬다는 유래에서 '춘마곡' 이름이 붙여졌으며 가을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워 '주갑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1400여 전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에 의해 창건, 고려 명종 때 보조 국사가 증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후 법일, 도선 국사에 의해 재중수, 조선시대 세조가 이 절에 들려 영산전을 사액(賜額)한 일이 있다고 한다.

창건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서른 개의 건물과 요사채가 있을 정도로 대사찰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잦은 전쟁과 화재로 인해 현재는 보물로서 대웅보전, 대광보전, 영산전만이 남아 있다. 오층 석탑은 중국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 세워져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2

업은 법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원문]

亦無修證 亦無因果 亦無筋力 亦無相貌 猶如虛空 取不得捨不得 山河石壁 不能爲碍 出沒往來 自在神通 透五蘊山 渡生死海 一切功業 拘此法身不得 此心微妙難見 此心不同色相.

“뒤를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으며,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인 것도 아니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며,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산이나 강이나 절벽이라도 걸림이 될 수가 없어 나고 들고 가고 읊이 자유롭고 신통한 것이니라. 오온(五蘊)의 산을 벗어나 생사의 바다를 건너리니, 온갖 업(業)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하느니라.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 어려우니라. 이 마음은 밖으로 드러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니라.”

[해설]

성철 스님께서는 '돈오돈수(頓悟頓修: 몰락 깨달아 몰락 뒤움)'라고 하셨습니다. '돈오'라는 것은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데, 여러 번들도 이론으로는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해오(解悟)'라고도 하고 직접 수행을 통해 깨달은 것을 '증오(證悟)'라고 합니다. 증오와 해오는 분명 다른 겁니다. '증오'는 그대로 습에서 바로 벗어나지만, '해오'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잘 안 됩니다. 익혀온 습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 해오입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께서는 전선에 업(業)이 있으니까 돈오가 뻗어도 점점 뒤아가야 한다는 점수(漸修)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한 번 깨달으면 뒤를 것이 없다'는 돈오돈수를 주장했어요.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된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 뒤를 것도 없고 성인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선에 들어가면 본심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분명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뒤를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 국사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았지만 전선에 업이 있으니까 뒤야 되죠. 업을 녹이는 수행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고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나 돈수나 점수나 그 자리에서 보면 절대 다른 말은 아닙니다.

“뒤를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으며,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인 것도 아니며, 힘이 있

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며,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산이나 강이나 절벽이라도 걸림이 될 수가 없어 나고 들고 가고 읊이 자유롭고 신통한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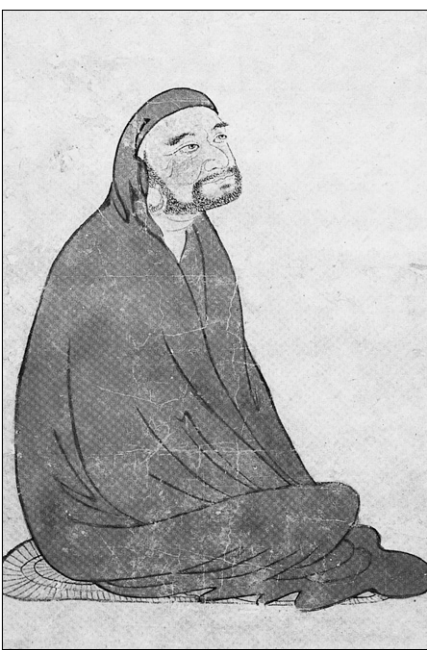
이는 나다, 너다 하는 경계가 다 끊어진 자리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우주의 근본 실상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45년 설하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법을 설했다고 하면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하셨듯이, 실상자리에선 이름과 형상을 떠났기 때문에 산이나 강이나 절벽이라도 걸림이 될 수가 없어 나고 들고, 가고 읊이 자유롭고 신통한 것이라 합니다.

“오온의 산을 벗어나 생사의 바다를 건너리니 온갖 업(業)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하느니라.”

오온이란 것은 <반야심경>의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과거에 수행하실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일체 괴로움을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오온'은 물질과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즉,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인 '색(色)'과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식(受想行識)'을 오온이라 합니다. 오근(五根)을 통해서 경계를 접하는 것을 '수(受)'라고 하며, 받아들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을 '상(想)'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행(行)'입니다. 행동한 다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아! 잘했다' 이것이 '식(識)'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질은 사실이 아닌 것인데, 이것을 눈으로 보고 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큰스님께서는 "여러분들 눈 앞에 책꽂이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 법을 아십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대한 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온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다 금덩어리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못 지나가죠. 옛날에 도인들은 그것이 똑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봐도 본 것이 아니고 냄새를 맡아도 맡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인과(因果)에 걸리지 않지만 모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온의 산을 벗어나려면 생사에 걸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의 마음을 법신(法身)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부처이니가 인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화신(化身)이라고 그래요. 부처가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 정주 혜은사 주지



명나라 때 손극홍(孫克弘)작 '붉은 가사의 달마도'.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서! 금쇄옥약시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쳐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은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緣)에 낀 액운厄運(厄)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액운(厄) 차귀탈(脫) 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판사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前世)시법
- * 前生의 夫婦(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現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憑依)귀신(靈)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轉生)귀신(靈)작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법

글·백초스님
상·하권/720면/정가 각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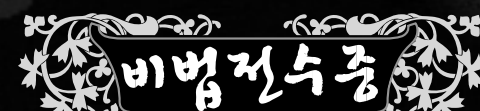
심자성(沈子成) 래정(來正)비법 전수생(傳授生)모집

사주를 뽑지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괘로 쉽게 푸는 법

1:1 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매일 예약가능)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02) 3667-4446 | 010-3813-4443